

SK그룹, 글로벌 사업 강화로 승부

최태원 회장, 중국을 내수시장 차원에서 접근 ... 독립경영도 실천

SK그룹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글로벌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경영체제도 가속화한다.

SK그룹은 10월31일부터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주요 관계사 사장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CEO세미나에서 글로벌사업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1월3일 발표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년간 SK가 거둔 성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을 과감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사가 독립적으로 생존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완전한 독립경영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같이>를 하자는 것도 <따로>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각사는 <따로>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내시장만으로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특히 중국은 단일경제권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해외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SK 브랜드는 <행복추구>의 상징이 되어야 하고, 공급제품이 다르더라도 SK 브랜드는 고객에게 행복을 심어준다는 <고객중심>의 행복 추구경영이 자리잡도록 관계사들이 함께 브랜드를 육성·발전시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SK그룹은 세미나에서 9월 발표했던 새 로고를 공식 채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세미나 마지막 날인 11월3일 SK CEO들은 <행복추구 실천 서약식>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같이하는 성장 함께하는 행복> 내용을 담은 사인보드에 서명했다.

<화학저널 2005/11/04>